

주름 개선 화장품 인기 끈다!

특허청, 1999년 이후 특허출원 급증 ... 한국이 54%로 최선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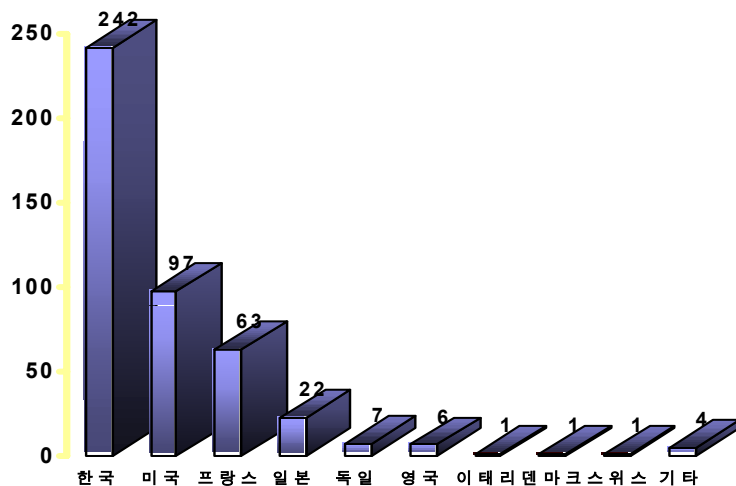
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갈구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주름개선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.

특허청에 따르면, 주름개선 화장품의 특허 출원은 1994년을 기점으로 급신장하고 있는데, 1999-2003년 5년 동안의 출원이 전체출원의 68%를 차지해 1994-98년에 비해 2.5배에 달하고 있다. 국가별로는 한국이 54%로 가장 많고 미국 22%, 프랑스 14%, 일본 5% 순이다.

주름개선 화장품의 활성성분은 신규 화합물과 관련된 출원이 44%, 천연식물 추출물이 34%, 레티노이드 8%, 비타민 C 4% 등이다.

신규 화합물은 주로 디벤조일메탄 또는 벤조트리아졸 유도체 등 자외선 차단을 통해 피부의 주름을 막아주는 성분이 대부분이며, 천연식물 추출물로는 인삼, 목단피, 녹차, 빈랑자 및 초두구 추출물 등이 있다.

주름개선 화장품 특허 출원실적 비교



특히, 최근 들어서는 천연식물 추출물에 화장품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, 식물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국내 민간요법 또는 전통의학에 기반을 둔 원료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.

주름개선 메커니즘별로는 콜라겐 합성 증진을 통한 주름개선이 32%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부 영양공급 18%, 자외선 차단 17%, 항산화제 7%, 보습제 6% 순으로 나타났다.

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천연식물 추출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, 주름개선과 미백효과를 동시에 갖는 천연 기능성 화장품 개발도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.

2003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6조2000억원에 달하고 주름개선 화장품은 약 8000억원으로 전체의 13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1/27>